

新小說에 나타난 基督教思想

李 在 春

<目 次>

- | | |
|-------------------|--------------------|
| I. 序 論 | 3. 贖罪와 救援論 |
| II. 作品에 나타난 基督教思想 | 4. 聖經과 敎育論 |
| 1. 하느님과 基督觀 | III. 作家들의 基督教 受容態度 |
| 2. 博愛精神 | IV. 結 論 |

I. 序 論

우리 민족은 外來思想을 받아들이기 이전부터 고유의 원시종교인 巫覡思想을 가지고 있었는데, 中國으로부터 儒敎思想和 道敎思想이, 印度로부터 佛敎思想이 들어오고나서, 儒·佛·道의 三代思想은 우리 민족의 思想을 형성케 한 根幹이 되었고, 또한 우리 文學의 思想的인 背景이 되었다. 그러다가 近世에 와서 西歐로부터 基督教¹⁾가 들어오면서 基督教 또한 우리 민족의 思想 및 文化에 큰 影響을 끼치게 되었다. 文學은 人間의 感情과 思想의 表現이므로, 文學作品에 나타난 思想의 研究는 文學 研究에서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韓國文學에 나타난 儒·佛·道思想에 관한 研究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뤄져 있으나, 韓國文學에 나타난 基督教思想에 대한 연구는 드문 편이며,²⁾ 특히 開化期의 新小說과 基督教思想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開化期時代의 文學에 나타난 基督教的 要素는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을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사료되므로,

- 1) 본고에서 ‘基督教’은 舊敎인 天主教(Catholic)와 新敎인 改新敎(Protestant)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쓴다.
- 2) 丘昌煥, 韓國文學의 基督教思想研究, 韓國言語文學 15, 韓國言語文學會, 1977.
白紉鐵, 기독교와 韓國의 現代小說, 東西文化 1, 啓明大, 1967.
李重九, 韓國基督教詩人의 詩에 나타난 思想, 論文集 12, 韓國國語敎育研究會, 1976. 12.
金光淳, 新小說研究—新小說에 나타난 基督教受容의 樣相을 中心으로, 東洋文化研究 5, 慶北大, 1978.

開化期文學 특히 新小說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新小說 중에서 基督教思想이 나타나 있는 작품은 상당수에 달하는데, 이중 특히 현저하게 나타나는 작품은 다음과 같다.

- 「夢 潮」(榮阿 作)
- 「多情多恨」(白岳春史 作)
- 「聖山明鏡」(崔協憲 作)
- 「禽獸會議錄」(安國善 作)
- 「경 세 종」(김필수 作)
- 「枯 木 花」(李海槿 作)
- 「朴 淵 瀑 布」(李常春 作)
- 「浮 碧 樓」(金容俊(?) 作)
- 「눈 물」(李相協 作)³⁾

본고는 이들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基督教思想이 韓國의 新小說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작가들이 그것을 어떠한 태도로써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살펴, 基督教과 新小說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Ⅱ. 作品에 나타난 基督教思想

韓國의 近代化, 곧 西歐化 과정에서 基督教은 西歐의 近代를 가져다가 前近代의 韓國땅에 씨를 뿌리는 先驅의인 使徒 노릇을 했다고 할 수 있다.⁴⁾ 開化派의 巨頭 金玉均 같은 이는 철저한 佛敎 信者이면서도 基督教을 높이 받들었는데, 이는 西洋의 富強이 基督教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또한 徐載弼은 <독립신문> 논설에서 「크리스도의 교를 착실히 행는 나라들은 지금 세계에 매일 강하고 매일 부요하고 매일 문명하고 매일 기화가 되야 하느님의 큰 복음을 넘고 살더라」(1987. 1. 26.)고 하면서, 西洋이 富強하게 된 것은 基督教 때문이라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開化派에서 開化를 하려면 基督教을 믿어야 한다고 한 데서 당대의 知識人들의 基督教觀을 여실히 살필 수 있으며, 이러한 사고가 開化思想을 고취하고 있는 新小說에도 반영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이와 같이 西洋의 文物과 基督教은 韓國의 開

3) 작품의 출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기로 한다.

《예》〈亞〉 8, p. 42. ……亞細亞文化社, 新小說·翻譯(譯)小說, 8권, p. 42.

〈乙〉 8, p. 52. ……乙酉文化社, 韓國新小說全集, 八卷, p. 52.

〈宋〉 p. 302. ……宋敏鎭, 韓國開化期小說의 史的 研究, 附錄, p. 302.

4) 白鐵, 앞의 글, p. 3

化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新小説에도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본다. 그러면 이제 基督教가 韓國의 新小説에 어떠한 형태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夢潮」는 開化主義者이던 男便이 死刑당한 후 그 부인이 基督教에 歸依하여 救援을 받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는다는, 基督教의 救援論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남편을 잃고 가난과 실의에 빠져 있는 정씨부인에게 天主教 傳道師가 등장하여 說教로써 感化시키고 基督教에 歸依토록 하는데, 그 傳道하는 모습을 살펴기로 하자.

나는 동동 교당에서 왔소……아아멘 하나님을 믿으시오 하나님의게 자알 구한는 소름은 복을 웃는 법이오 하나님의게 몸을 바치시오 몸을 바치면 괴롬 다아 사함여 주시는 법이오 하나님을 믿으시오……세상은 모다 마귀세장이요 소름이 마귀시험에 들면 헐 수 업논 것이요 주인부인이 마귀의 책임에 들었소 틈들이 이 죄를 줌 보시오 하고 조그마흔 죄 훈 권을 넘어준다 이 조그마흔 죄은 성경속의 누가복음이라 하는 죄이라⁵⁾

하나님은 지극히 착하시고 못흔실 일이 없는 권능을 가지신 대주지신고로 었더 할 소름이던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문에 빠져 잇던 소름 전지는 것갓치 열른 손을 주시면서 어서 빨리 올라오나라 하고 이 세상의 마귀 시험 속으로부터 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지요 우리가 누구던지 회개하고 믿고 하나님 압호로 나아가면 이 은복을 입을 수 잇소 생각하여 보시오 믿음이 아니고 무슨일을 할 수 잇나 생각하여 보옵시다⁶⁾

또한 하느님⁷⁾을 믿는 사람은 근심 걱정이 없다고 說教한다.

던하는 황실의 지친이시오 나는 하나님의 천조이오니 던하는 황실을 믿으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써 세상을 믿는 소름은 근심이 잇고 하늘을 믿는 소름은 근심이 업는 법이라 던하도 하나님을 회개하고 믿고 나아가시면 근심이 업시리다 헐앗시니 누구던지 하나님을 믿는 소름은 근심이 업실 것이요 가난흔 것을 걱정마시오 가난하더구 굴며죽는 법이 업소직⁸⁾

5) 〈宋〉p. 290.

6) 〈宋〉p. 292.

7) ‘하느님’이 轉音되어 ‘하느님’에서 ‘하느님’으로 되었을때, 天主敎會에서는 漢字의 ‘天主’를 國語의 ‘하느님’으로 개칭하였으나, 新敎團에서는 唯一神임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으로 칭하고 있다.

8) 〈宋〉p. 294.

결국 하느님께 歸依하고 基督教을 믿으면 근심 걱정이 없이 잘 지낼 수 있다고 하고 있다.

(2) 「多情多恨」⁹⁾은 三醒先生이란 清貧한 警察官이 免職 下獄되어 있는 중에 基督教에 心醉되었으려, 放免 후에는 傳道와 社會事業에 힘쓴다는 이야기로서, 부패하고 不條理한 사회를 구제하는 길은 하느님을 믿는 基督教精神밖에 없다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다.

주인공은 옥중에서 「天路歷程」을 읽고 큰 감명을 받고 나서 新·舊約聖經을 빌어 주야로 읽다가 마침내 ‘耶蘇 믿기’를 결심하고 聖經 연구에 온갖 정성을 쏟으며, 무죄 방면된 후에도 傳道事業에 열심히 종사하면서 社會事業과 公共慈善을 하기도 한다.

……하느님이 우리 사람을 너설 석에 었지 글머죽게 冥冥 理致가 잇게삼냈가 耶蘇 잘 밋으시고 安心하야 지너시면 自然 사난 道理가 잇깁니다……自後로는 一團 中에 耶蘇를 信依하노 마음이 날노 두터워 獄中에서 祈禱讚美하며 歲月을 보너너니 人事가 窮則必變하고 苦盡甘來로다 青天白日下에 無罪放免하노 몸이 되야 三年 만에 獄門을 辭出하고 世上에 나와서도 此有志圖은 獄中誓約을 不變하고 上帝의 뜻을 받드리 社會事業과 公共慈善 等 事業을 一心으로 經營하노디 先生은 至今도 一身을 救世에 自委하야 傳道事業에 熱心從事함내다 아멘!¹⁰⁾

이 작품에서 주인공은 옥중에서도 基督教을 믿음으로써 마음의 평정을 얻었으며, 방면된 후에도 傳道事業에 종사하고, 基督教精神으로써 부패한 관료와 부조리한 사회를 구제하려 하고 있다.

(3) 「聖山明鏡」은 信天翁이 儒·佛·道에 고명한 세 사람에게 三教의 不合理性을 지적해 주고 예수의 위대함과 基督教의 고매한 진리를 역설함으로써 그들을 基督教人으로 改宗시키는 이야기인데, 基督教思想의 전파를 그 주제로 하고 있다.

주인공인 信天翁은 全知全能하신 하느님과 三位一體說, 즉 聖父·聖子·聖靈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하느님께서서는 온전히 능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시며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시
無所不知 無所不在

9) 이 작품은 獨立協會事件으로 인해 投獄되었다가 옥중에서 基督教人이 된 警務官 金貞植의 實話가 아닌가 한다. 이 작품에 「寫實小說」이란 타이틀이 붙어 있고, 또한 警務官을 지낸 金貞植의 號가 三省인데, 주인공 三醒先生의 이야기가 李能和의 記錄에 나오는 金貞植의 行蹟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李能和, 朝鮮基督教及外交史, 朝鮮基督教彰文社, 1928, pp. 203—204 참조.

10) 〈宋〉p. 307.

더 독일쿠이 한시고 무시무종한시작 텃승턴하에 못하실 일이 업스지미 사람의 성전
獨一無二 無始無終
조후와 만물의 홍망성의를 다 주관하시니 성덕과 공의와 인의와 자비와 진리가
聖德 公義 仁愛 慈悲 真理
계시고 전능중에 성기와 무시종과 유일과 빈지와 불력이 개신지라 그 위를 막을
聖氣 無始終 唯一 遍在 不易
진덕 셋이 있스니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지오 그대를 말승홀진덕 하나이지니 독일쿠
이한신 하느님이시라 성부외서는 텃덕과 마다와 그 가운데 막유에 물건을 창조하
신 이시오 성자외서는 이 세상에 강성한사 부활홀 크로를 밋으시고 십자가에 못박
혀 죽으사 홀니신 피코 만국만민에 죄를 디속하신 디치아지오 성신외서는 이 세상
에 오사 악한 사람의 마음을 감화하여 선화기 하시미 이두은 자의 마음을 품게 하
시고 어리석은 자의 성정을 지혜롭게 하시니 聖靈사시라¹¹⁾
保惠師

또한 예수를 믿어야만 天國으로 갈 수 있다고 說教한다.

누구든지 예수를 밋는 자는 죄를 속하고 구원함을 얻느니 죄가 업은 후에야 능
히 하느님 앞해 갈 수가 있는 거시오. 예수외서는 근본 하느님이시오 또한 사람이
신교로 하느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되신지라 예수 곧은 자라 나는 길이지오 성령이
오 출리자라 나를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갈 수 업다 하겠스
니 만드신 예수를 밋어야 천부압해 올라갈지라¹²⁾

信天翁의 說教를 듣고 白雲道士와 圓覺스님이 감명을 받아 基督教人이 되
지만, 儒家의 진도만은 그래도 不服하므로 西歐의 文明함이 基督教의 德化
임을 강조하자 그도 基督教을 믿기로 한다.

이 小説은 처음부터 끝까지 基督教과 儒教·佛敎·道敎의 이론을 討論 형
식으로 전개시켜 나가면서 基督教의 우수성과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작
자는 이 小説을 쓰게 된 동기를, 救世主 예수를 믿은 후로 聖經을 공부하던
서 儒·佛·道 三敎에서 공부하던 자를 基督教人으로 改宗시키려는 의도에
서라고 이 작품 말기에서 밝히고 있다.

이 책은 삼한고국의 濯斯子라 하는 사람이 記述한 글이니 박소조 일족이 종교
가의 진리를 연구하여 각교 문호의 잇머함과 목적의 여하함을 차질치 유교의 存心
養性호는 倫常之理와 석가의 明心見性호는 空空호 법과 仙家의 修心鍊性호는 玄玄
호 술법을 心衡으로 저울질 하더니 구세주 예수를 밋은 후로 홍상 성경을 공부하며
평성에 일원성식으로 원화기를 잊지하면 성신의 능력을 얻어 유도와 선도와 불도
중 고명호 선비들의게 전도하여 밋는 무리를 만히 잇우고 성작하더니……유물선

11) 〈亞〉 4, pp. 87—88.

12) 〈亞〉 4, p. 123.

삼도에서 공부하던 자라도 만일 성신이 인도하여 예수교인과 상종하면 믿음의 교
통하여 밋는 데즈가 될 수 있습이라 그런고로 탁스즈 그 몽조를 기록하여 주의
의 평일 소원을 포함일너라¹³⁾

(4) 「禽獸會議錄」은 動物을 내세워서 人間과 社會의 惡德과 不條理를 辛辣하게 批判하고 諷刺한 寓話小說인데, 짐승들이 모여서 인간을 糾彈하는
근거가 바로 基督教精神에 있다.

동물들은 개회취지에서 創造主 되시는 하느님의 권능을 말하고, 인생의
목적이 하느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다고 하면서 악하고 부정한 인간들
을 규탄한다.

대더 우리들이 거주하여 사노 이 세상은 당초부터 잇던 거시 아니라 지극히 거
룩하시고 지극히 능하신 하나님께서 조화로' 만드신 거시라 세계만물을 창조하신
조화주를 곧 하나님이라 하니 일만 리치의 주인되시는 하나님께서 세계를 만드
시고 또 만물을 만드러 작직 물건이 세상에 생기게 하셧스니 이갓치 만드신 목적
은 그 영광을 나타닉여 모든 성물로 하여곰 인조한 은택을 베프러 영원한 행복을
맞게 하라 흡이라……다작기 텃디 본리의 리치만 조차서 하나님의 뜻대로 본분을
적히고 한편으로는 계명의 행복을 누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지니
그 중에도 사롭이라 하는 물건은 당초에 하나님이 만드실 새이 특별이 영혼과 도
덕심을 너히서 다른 물건과 다르게 하싧신즉 사롭들은 더욱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
야 텃디정도를 적히고 착한 형실과 아름다운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닉여야 할
터인디 지금 세상사롭의 하는 형위를 보니 그 하는 일이 모다 악하고 부정하여 하
나님의 영광을 나타닉기는 고사하고 도로혀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게 하며 은혜를
비반하여 제반 악종이 만토다¹⁴⁾

그리고 결말에서도 悔改와 救援을 강조하고 있다.

예수씨의 말씀을 드르니 하느님이 아직도 사롭을 사랑하신다 하니 사롭들이 악
할 일을 만히 하였슬지라도 회개하면 구완엿는 길이 있다 하얏스니 이 세상에 있
는 여러 형제지미는 길히길히 생각하시오¹⁵⁾

결국 인간은 죄를 짓고 살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悔改하면 하느님의 救援
을 받을 수 있으니 基督教을 信奉하라는 것이다.

이 작품은 基督教精神에 입각한 인간 존엄성과 윤리의 회복을 강조하고

13) <亞> 4, pp. 127—128.

14) <亞> 2, pp. 452—454.

15) <亞> 2, pp. 496—497.

있으나, 小説의인 구성이나 구체적인 이야기의 전개는 결여되어 있다.

(5) 「경세종」은 「禽獸會議錄」과 구조와 내용이 비슷한데, 禽獸와 昆蟲들이 모여 인간의 非行을 하느님께 고발하면서 모두 聖經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

천복회 개회 취지에서 회장은 아담과 이브의 原罪說을 설명하고 인간들이 예수를 믿고 죄를 悔改할 것을 촉구한다.

저회를 내시고 기르시며 텃디의 도수를 텃향사 출하유동 사시와 년디를 작명하시고 우로지척을 느리샤 옉곡 빅과를 먹게 하신 하느님외만 경비하고 그 외아들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였스면 텃다가 훈 집이 되고 역조가 훈 식구가 되어 화평훈 복락을 영원무궁토록 누릴 것이니¹⁶⁾

또한 모든 회원들이 연회석에서 茶菓를 먹으면서 이를 내려 주신 하느님께 감사의 祈禱를 드리기도 한다.

우리는 이갓치 아름다운 실과를 이런 교회에 모혀 먹을 때에 이 식물을 내신 하느님의 잠간 감사하고 먹느거시 썻썻한 일이오니 잠시 머리를 숙이고 기도함세다 하고 양회장이 인도하느던 텃디에 대주되신 하느님이여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이갓치 아름다운 실과를 서로 천복하는 마음으로 먹게 도아 주셨스오니 만만감사하오이다 이 잔치를 먹고 흥상 화평한 뜻으로 하느님의 뜻 주너들 나타나는 날까지 천복하여 저내게 도아주시옵쇼서 우리를 지으신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의 일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고 먹기를 시작한 때에……¹⁷⁾

그리고 기념촬영을 마치고 작별한 때도 일제히 「아멘 !」 하면서 헤어지는 데서 基督教의 思想 내지 요소를 엿볼 수 있다.

이 작품도 독자들에게 基督教思想을 전달하려는 목적에서 창작된 것으로 보이나, 小説로서의 구성이 미흡하고 구체적인 이야기의 전개가 결여되어 있다.

(6) 「枯木花」는 자신을 죽이려 한 원수를 基督教의인 사랑으로 容恕하고 惡人들도 前非를 悔改하고 改過遷善하게 된다는, 基督教의 博愛精神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趙博士는 본래 야박하고 경솔한 사람이었지만, 聖經을 공부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부터는 悔改하고 慈善事業을 하는 醫師가 되어

16) 〈亞〉 2, p. 517.

17) 〈亞〉 2, pp. 522—523.

權進士의 중명을 치료해 주고 그를 信仰으로 인도한다.

조박사는 문리야박하고 경술학기로 궤호학하던 스승인더 미국을 가서 성경 공부를 할 후로 독실한 신사가 되야 진리를 깨다름으로 전에 하던 형질을 낫낫지 회개하고 도덕군주가 될 사람이라 날도 권진사를 위하야 상대께 괴도도 하고 조흔 말도 병증을 인도도 하니¹⁸⁾

주인공인 權進士도 趙博士의 說敎에 感化되어 ‘원수를 사랑하라’는 聖經의 말씀을 깨닫고 자신을 죽이려 한 원수 오도령과 피산집을 용서하기로 한다.

조박사의 복을 전하는 말을 하로 듯고 이할 듯더니 복수할 악한 마음이 점점 업서지며 피산집과 오도령이 악함이 새지 나오지 못함을 돌오혀 불쌍하야 붉은 곳으로 인도하야 영인한 침물을 뜰케 할 사랑하는 마음이 나시 생각하되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룩한 말씀을 아지 못하고¹⁹⁾

한편 이러한 慈悲로 인해 죽을 죄를 용서받은 오도령과 피산집도 前非를 悔改하는 데서 그들까지도 基督教精神에 다소 感化됨을 보여준다.

원수를 위하부 다리에서 만났다고 인더 저 광반이 오섯스니 하로도 지체못하고 곳 죽지 피앗다 하엇더니 놀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뜻을 본바드사 피악의 침튼흔 죄의를 도르혀 불쌍히 넘기스 아모조록 회개하도록 지시하시요……세상에 그런 덕택을 만분지일이라도 감자 하면 죄의들이 그 덕에 가서 덕덕로 종노릇을 하야도 못다 감을 디야요²⁰⁾

이 작품의 사건 설정의 특색은 信仰的인 人物과 非信仰的인 人物이 대립하여 非信仰的인 人物이 모두 信仰으로 歸依하거나 悔改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도 흉악무도하던 오도령과 피산집조차도 권진사의 慈悲로운 용서를 받고 感化되는 데서, 아무리 악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博愛精神 앞에서는 悔改하고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본보기를 보여 줌으로써 基督教의 위대함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7) 「林淵瀑布」는 본의 아니게 도적의 피수 노릇을 하던 최성일이 東京에서 基督教神學 공부를 하는가 하던, 김애경은 계 목숨을 앗으려던 원수를 도리어 사랑으로 대하고 聖經을 주어 改過遷善케 한다는 것으로, ‘원수를 사

18) 〈亞〉 6, p. 110.

19) 〈亞〉 6, p. 112.

20) 〈亞〉 6, p. 131.

랑하다'는 基督教의 博愛精神을 주색로 하고 있다.

붉은 보자기에 싼 책 한 권을 꺼내어 웃고 주며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원수를 갚는 것이요, 이 책을 읽어 보시고 악행을 회개하십시오.”하니……그 책은 별 책이 아니라 성경전서일터라. 고대장이 그 책을 받고 크게 감복이 되어서 울며 이왕 죄를 슬피 회개할새……애경의 주된 마 성경을 실새없이 읽으며 그 전에 행한 일을 크게 후회하여 힘써 악행을 버리고 선한 일만 행하니 이로부터 포악한 강도가 변하여 양심한 의인이 되었더라. 대지 이 세상 보통 인정이 주먹은 주먹으로 대적하고 발길은 발길로 대적하여 악으로써 악을 갚으나, 원수까지 사랑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좇아 꼭 그대로 행하는 그리스도교인의 원수를 갚는 것은 대개 이와 같으니라.²¹⁾

김애경은 도적의 괴수 고대장에 의해 목숨을 잃을 뻔했다가 예수교회에서 설립한 병원의 의사에게 구원을 받고 살아났지만 병신이 되었는데도 원수인 고대장을 용서한다. 또한 그렇게도 흉악하던 고대장도 애경의 慈悲로운 용서를 받고 感化되는 데서, 아무리 흉악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博愛精神 앞에서는 悔改하고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본보기를 보여 줌으로써 基督教의 위대함을 나타내고 있다. 非信仰的인 人物은 칼로 원한을 쌓지만, 基督教人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것이다.

(8) 「浮碧樓」는 주색에 미친 남편에 의해 색주가에 팔린 부인이 牧師에게 救援을 받아 基督教 信徒가 되고, 후일 과거를 뉘우치고 勸師가 되어 傳道하는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로, 어떠한 난관과 죄악도 결국 信仰의 힘으로 극복되고 행복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그린 基督教의인 작품이다.

악한 자를 설복하여 敎人으로 인도하는 傳道 모습이나, 과거를 참회하고 悔改하는 사나이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이때 자기 모친과 부인은 예수교를 믿던 터이라 할주를 보고 얼마쯤을 권면하였던지 잠기에 침혹하여 천지를 분간치 못하던 한주가 회개를 하고 자기 집에 있어 구주를 믿고 생활하기를 일삼더니……운영으로 하여금 자기 집에서 묵게 하고 구주의 진리를 토로하이 운영이가 곧 구주를 믿고 교회에서 종사할새²²⁾

또한 基督教人에 대한 民衆의 호감과 믿음이 잘 나타나 있다.

21) 〈乙〉七, p.168.

22) 〈乙〉八, pp.452—453.

목사가 누구인가?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인가로군. 저거밖에 우리집에 전도부인이 와서 목사나 장로니 하며 이야기를 하던데 아마 저 부인도 전도부인인가로군.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착하다는데 아마 목사는 더 착하겠지. 아무렇든지 목사라니 내 사정 이야기나 해보리라……저 남자가 예수교 목사라 할 적에는 필연 행세가 그르지 않을 터이요 또 그 언사의 관속한 것을 보더라도 과히 상습을 사람 같지는 아니한지라.²³⁾

이 작품은 아무리 고난과 역경에 처하더라도 基督教을 믿으면 마음의 평온을 얻고 救援을 받아 결국 행복에 이르게 되며, 또한 지극히 불량한 사람도 基督教을 믿게 되면 훌륭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예를 보여 줌으로써, 基督教을 信奉할 것을 은연중에 권장하고 있다.

(9) 「눈물」은 온갖 나쁜 짓을 일삼던 평양집이 救世軍²⁴⁾ 마야대좌의 救援을 받고는 感化를 받아 悔改하고 새사람이 된다는, 基督教의 感化를 강조하는 작품이다.

작자는 基督教의 感化를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마야대좌가 사람의 행할 도리를 말하여 평양집의 악한 마음을 회개케 할 때가 돌아왔도다. 마야대좌가 하나님의 만능하신 힘을 얻어 악마 같은 평양집을 선한 람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감사하심을 참마음으로 깨닫게 할 때가 돌아왔도다. 어떠한 악인이든지 잠시 깨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형상이 눈에 부딪치고 여러 가지 유성이 귀에 들리기 전, 그 잠시에는 반드시 하늘이 주신 착한 마음 가운데에 그 정신이 배회하는 법이라……이 세상의 인생으로 하여금 모두 하늘을 우리리 믿으며, 하늘에 기도케 하여서 착한 일을 행하고 못된 일을 행치 않도록 그 마음을 감화시킨다는 종교가 이른바 그리스도라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본지를 받아 그 종교의 종지로 이 세상의 온갖 불행한 자, 죄를 지은 사람으로 보이는 자……와 싸워서 자기의 종교에 돌아가 의지케 하는 단체는 가론 구세군이다.²⁵⁾

또한 마야대좌는 누구든지 자기의 범한 죄를 悔改하면 救援받을 수 있는 데, 救援받기 전에 먼저 告解부터 하라고 한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구별이 없이 같이 사랑하사

23) 〈乙〉八, p. 444.

24) ‘救世軍’은 본부를 英國에 둔 改新敎의 일파로, 傳道・慈善・社會事業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 罪惡을 공격하며 罪惡의 世態와 싸움을 전개하기 위하여 군대식 조직을 채택하고 軍服을 착용하며 街頭傳道와 行進 등을 행한다.

25) 〈乙〉十, pp. 233—234.

그중 이전의 악한 마음을 고치고 하나님에게 참마음으로 의지하는 자에게는 행복을 주시는 것이요,……그렇지만 하나님이 불행한 사람을 구제하여 행복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자기의 악한 일을 일일이 자복하여 하나님께 고하고 참마음으로 이전 일을 후회하고, 또 강대에는 착한 일을 행하겠다 맹세치 아니하면 안 되겠소.……지금부터 누님이 이때까지 행한 죄악을 고치고 착한 사람이 되려 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안 되겠소.……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려면 불가불 자기의 이전 죄악을 일일이 자복치 아니하면 되겠소?……참마음으로 자복을 하면 어떠한 큰 죄악이든지 소멸되는 것이요.²⁶⁾

이 작품에서 평양집은 情夫人 장철수와 모의하여 조필환의 가정을 파괴하는 등 흉악한 일만 일삼았으나 基督教人인 마야대좌의 救援을 받고나서는 感化를 받아 悔改하고 새사람이 된 데서, 基督教의 위대함을 보여 줌으로써 基督教을 信奉할 것을 은연중 권장하고 있다.

이상에서 든 新小説에 나타나는 基督教思想 내지 基督教의 要素는 다음과 같이 하느님(神觀)·博愛精神·贖罪와 救援·聖經과 教會 등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1. 하느님과 基督觀

基督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救援을 얻고자 하느님을 믿는 宗教다. 基督教에서 말하는 하느님은 唯一 絶大의 神이다. 하느님은 무한한 權能을 가진 萬有의 統治者이며 우리 인간이 미치지 못하는 絶對者이다. 또한 하느님은 모든 萬象萬物의 創造者이기도 하다. 이 세상을 무한히 사랑하며 지혜롭고 슬기로운 이로 하느님나라의 실현을 원하는 분이다. 이러한 하느님을 新小説에서도 全知全能한 존재로 創造主며 支配者며 아버지로 그리고 있다. 또한 하느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 이는 「聖山明鏡」이나 「禽獸會議錄」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하느님께서서는 온전히 능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독일무이하시고 무시무종하시고 텅상턴하에 못하실 일이 업스시며 사물의 성전 소후와 만물의 흥망성쇠를 다 주관하시고니 성덕과 공의와 인의와 진리가 계시고 견증중에 성의와 무시종과 유일과 변지와 불력이 계신지라(聖山明鏡)²⁷⁾

대대 우리들의 거유하야 사논 이 세상은 당초부터 있던 거지 아니라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견증하신 하나님께서 조화로 만드신 거지라 세계 만물을 창조하

26) 〈乙〉十, pp. 234—235.

27) 〈亞〉4, pp. 27—88.

선 조화주를 뜻 하나님이라 호하나 일단 리치의 주인되시는 하나님께서 세계를 만드시고 또 만물을 만드려 각씩 물건이 세상에 정기게 하였스니(禽獸會議錄)²⁸⁾

2. 博愛精神

基督教은 사랑의 宗教이며, 사랑이 곧 基督教의 本質이다. 예수의 이 세상에 있어서의 모든 사업은 博愛精神아래 행해졌으며, 그의 전 생애가 바로 하느님의 사랑을 실현한 것이었다. 전 인류는 하느님 앞에서 한 兄弟이므로 모두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몸 같이 하라고 가르치고 몸소 실천하였다. 이러한 博愛精神은 新小説에서도 사랑의 무한성과 휴머니즘,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 慈善事業 등으로 잘 나타나 있다. 특히 「枯木花」나 「朴淵瀑布」 등에서는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용서함으로써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이 실현되고 있으며, 많은 작품에서 慈善事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복수할 악한 마음이 점점 엄서지며 피산집과 오도령이 악함이 빠져 나오지 못함을 돌으며 불쌍하여 붉은 곳으로 인도하여 영원한 침묵을 면케 할 사랑하는 마음이 나서 생각하여 원수를 사랑하라는 기록한 말씀을 아지 못하고(枯木花)²⁹⁾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원수를 갚는 것이요. 이 책을 읽어 보시고 악행을 회개하시요.” 하니……그 책은 별 책이 아니라 성경전서일터라(朴淵瀑布)³⁰⁾

3. 贖罪와 救援論

基督教에서는 우리 인간이 原初부터 죄를 짓고 태어난다고 보고 있으며(原罪說), 또한 모든 罪惡의 根本은 인간의 肉性에서 나온다고 보고 있다(靈肉二元觀). 죄에 빠진 인간을 구하기 위하여는 그 죄에 대한 贖罪를 해야 한다. 하느님은 인간의 죄를 중시하였으므로 예수께서 이 세상에 보내어 十字架 위에서 죽게 함으로써 전 인류의 죄를 代贖케 하였다. 그러므로 贖罪主人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救援을 얻을 수가 없다. 基督教에서 救援을 얻는 길은 예수의 代贖함을 받아 성취될 수 있으나 이에 앞서 悔改함이 있어야 한다. 悔改란 자기의 罪狀을 하느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를 비는 것이며 이와 동시에 宗教적으로 깨끗한 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罪→悔

28) 〈亞〉2, pp.452—453.

29) 〈亞〉6, p.112.

30) 〈乙〉七, p.168.

改→贖罪→救援에 관한 것이 新小説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禽獸會議錄」에서는 인간은 죄를 짓고 살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悔改하면 하느님의 救援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 「눈물」에서는 누구든지 자기의 범한 죄를 悔改하면 救援받을 수 있는데, 救援받기 전에 먼저 懺悔부터 하라고 한다.

사람들이 악한 일을 만히 하였슬지라도 회개하면 구원얻는 길이 있다 하였스니
(禽獸會議錄)³¹⁾

하나님이 불행한 사람을 구제하여 행복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자기의 악한 일을 일일이 자복하여 하나님께 고하고 참마음으로 이런 일을 후회하고, 또 상대에는 착한 일을 행하겠다고 맹세치 아니하면 안 되겠소. (눈물)³²⁾

4. 聖經과 教會論

聖經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적은 것으로, 基督教의 信仰과 教理는 聖經에 구체화되어 있다. 聖經은 舊約聖經과 新約聖經로 크게 구분되는데, 舊約聖經은 유대인의 歷史를 통해서 하느님의 法道와 義를 보여 주는 책이라면, 新約聖經은 예수의 生涯와 敎訓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낸 책이다.³³⁾ 教會라는 것은 예수가 이루어고 하는 人類救濟의 사업을 계속하는 곳이며, 이 教會를 통해서 인류의 구제사업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聖經과 教會에 대해서, 新小説에서도 聖經의 教理 해설 및 教會에서 예배보는 모습, 전도활동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夢潮」는 후반부에서 「누가복음」의 해설로 일관하고 있으며, 「聖山明鏡」·「禽獸會議錄」·「경세종」 등에서는 「창세기」·「요한복음」·「마태복음」·「누가복음」·「요한계시록」·「사도행전」·「고린도전서」 등에 있는 聖經 말씀이 인용되고 있다.

나는 명동 교당에서 왔소……여하면 하나님을 믿으시오 하나님의게 자알 구원은 소름은 복을 웃는 밍이오 하나님의게 몸을 댕치시오 몸을 댕치면 죄를 다야 사함여 줌서는 밍이오 하나님을 믿으시오……들들이 이 책을 좀 보시오 호고 조고마호 책 호련을 너여준다 이 조고마호 책은 성경 속의 누가복음이라 호는 책이라
(夢潮)³⁴⁾

31) <堯> 2, p. 496.

32) <乙> 十, p. 235.

33) 계명대 종교교재편찬위원회, 성서해설, 계명대출판부, 1978, p. 11.

34) <宋> p. 290.

구역 성경 전도 삼장 말씀을 불전대 세상 만사가 모두 때가 있다 하였으니,
아부조독 구주를 믿으시고 주께 위로함을 받으시고(浮碧樓)³⁵⁾

Ⅲ. 作家들의 基督教 受容態度

그러면 이상의 新小說에서 基督教思想이 어떻게 受容되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文學에서 宗教의 문제를 다룰 때는, 宗教의 教理와 敎訓을 直說的으로 그리는 경우도 있고, 변죽만 울려서 간접적으로 그리기도 하며, 反宗教的 위치에서 다루는 경우도 있다.³⁶⁾ 文學을 宗教의 手段으로 삼을 때는 教理의 擁護나 傳道가 목적이기 때문에 文學보다는 宗教쪽에 중심이 기울기 쉽다. 그러나 文學에서 宗教를 다룰 때에는 宗教보다 文學이 주가 되므로 宗教가 文學이란 藝術 속에 들어가 形象化되어야 한다.³⁷⁾ 文學의 입장에서 보던 작품 속에 宗教가 溶解되고 形象化되어야 할 것이다. 文學作品 속에 宗教思想이 形象化되어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宗教의 정신이 肯定的으로 受容되는 경우도 있고, 批判的으로 受容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否定的으로 受容되는 경우도 있다. 위에서 든 「夢潮」·「多情多恨」·「聖山明鏡」·「禽獸會叢錄」·「경세종」·「枯木花」·「朴淵瀑布」·「浮碧樓」·「눈물」 등은 基督教가 肯定的으로 受容된 경우이며, 宣敎의 目的아래 教理 해설로 일관하며 主題가 基督教과 관련된 작품들이다. 이밖에도 「杜鵑聲」·「顯微鏡」·「菊의 香」·「鬼의 聲」·「銀世界」·「牡丹屏」·「長恨夢」·「桃花園」·「明月亭」·「飛行船」·「玩月樓」·「玉壺奇緣」·「雙玉笛」·「鴛鴦圖」·「만인제」 등에서 基督教가 사건 전개를 위한 수단, 즉 배경 또는 도구로서 단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韓國에 있어서의 基督教의 傳來는 멀리 朝鮮朝 中葉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舊敎인 天主教가 공식적으로 信仰의 自由를 획득한 것은 1880 년대에 들어와서 韓·佛條約 이후의 일이고, 新敎인 改新敎가 들어온 것은 1884 년이다. 新小說이 쓰여진 시기는 基督教가 한창 퍼져 나갈 때로서 宣敎의 目的아래 新小說을 통해 基督教의 福音과 教理를 전달하려 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基督教가 당시의 知識人들이나 庶民들에게도 大衆化·常識化되어 있던 때이라 작품 속에 基督教의 요소가 작품 전개의 수단으로서 쓰여진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基督教의 教理를 布敎하고 宣敎해서 죄진 자는 悔改하여 救濟받도록 함으로써 인간 사회의 죄악을 소멸하려

35) <乙> 八, p.448.

36) 丘仁煥·丘昌煥, 文學概論, 三英社, 1976, p. 77.

37) 李重九, 앞의 글, p. 6.

는 목적의식도 다분히 작용했을 것이고, 「禽獸會議錄」이나 「경세중」 같은 것은 宗教的 布教方式을 빌어 당대의 현실 및 인간사회를 諷刺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다음으로는 이상과 같은 新小説을 쓴 作家들과 基督教와의 관련 여부를 살피기로 한다. 이중 安國善과 김필수·崔炳憲은 基督教人이다. 安國善은 曾經郡守로 재직중 獨立協會의 事件으로 투옥되어 옥중에서 基督教 信者가 되었다고 하며,³⁸⁾ 崔炳憲과 金弼秀는 儒家 出身들로서 基督教 초기의 牧師와 지도자들이었다고 한다.³⁹⁾ 즉 崔炳憲은 開化派 출신의 貞洞 監理教會 牧師이며, 金弼秀 또한 서울 銅峴 長老教會에서 총대로 활약했었다. 이밖에 白岳春史·盤阿나 李海朝·李常春·李相協 등은 基督教와의 관련 여부를 밝힐 수는 없으나 그들이 작품 속에서 聖經의 教理 및 基督教精神을 철저하게 단편적이지는 간에 긍정적으로 반영시켰다는 데서, 이들을 基督教人이거나 基督教에 대해 상당한 지식이 있는 자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이들은 篤實한 基督教 信者이거나, 또는 教會에는 나가지 않더라도 基督教을 內心으로 믿는 자일 수도 있다. 혹은 信者는 아니지만 基督教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가진 자 또는 基督教에 대해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자로 볼 수 있다. 이들 작가들은 篤實한 基督教 信者인 경우는 基督教의 교만한 진리를 布教하려는 목적에서 작품을 썼을 것이고, 教會에 나가지 않더라도 基督教의 진리만을 信奉하는 자일 경우는 基督教의 博愛精神 등을 작품 속에 溶解시켜 독자들이 감명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회를 淨化하려는 의도에서 작품을 썼을 것이며, 基督教에 대해 지식이 있거나 우호적인 자인 경우는 작품 전개의 수단으로 썼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新小説의 작가들은 그들의 작품에서 基督教人을 모두 善人으로도 설정하고 있으며, 죄 많은 사람도 基督教을 믿으면 善인이 되며, 信仰의인 人物과 非信仰의인 人物의 대립에서는 반드시 信仰의인 人物이 승리자가 되도록 결구해 놓았다. 이는 바로 그들 작가들이 基督教을 肯定的으로 受容해서 그 教理를 독자들에게 전달하려 했음을 의미한다.

아 물론 新小説 작품에서 新小説의 작가들은 基督教을 전파하려는 의도에서 基督教을 수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건 전개의 수단으로써 基督教을 수용하기도 했다고 보여진다.

38) 李能和, 앞의 책, pp. 203—204 참조.

39) 白樂淵, 基督教의 展開;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20, 탐구당, 1977, pp. 246—247 참조.

IV. 結 論

이상으로써 開化期의 新小說 작품에 나타난 基督教思想을 살펴 보았다. 新小說 중 基督教思想이 특히 두드러지는 작품으로는 「夢潮」·「多情多恨」·「聖山明鏡」·「禽獸會議錄」·「경세종」·「枯木花」·「朴淵瀑布」·「浮碧樓」·「눈물」 등이 있다. 「夢潮」는 基督教을 믿으면 근심 걱정이 없이 잘 지낼 수 있다는 基督教의 救援論이 잘 드러나 있고, 「多情多恨」은 부패하고 부조리한 사회를 구제하는 길은 하느님을 믿는 基督教精神밖에 없다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聖山明鏡」은 基督教의 우수성과 타당성을 강조하여 基督教思想의 전파를 주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禽獸會議錄」과 「경세종」은 基督教의 布教方式을 빌어 당대의 현실 및 인간사회를 諷刺하고 있으며, 「枯木花」와 「朴淵瀑布」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聖經말씀이 실천됨으로써 基督教의 博愛精神이 잘 드러나고 있고, 「浮碧樓」와 「눈물」은 죄 많은 자가 基督教의 應化를 받아 悔改하고 새사람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작품을 나타난 基督教思想을 종합적으로 살펴 본 결과, 하느님(神觀)·博愛精神·贖罪과 救援·聖經과 教會 등으로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났다.

新小說에서 基督教의 受容態度를 살펴 본 결과, 사건 전개를 위한 수단으로 쓰여진 경우도 있었으나, 대체로 宣敎의 目的아래 敎理 해설로 일관하며 주제가 基督教인 작품이 많았다. 新小說 속에서는 대체로 基督教思想이 肯定的으로 수용되어 있다. 그것은 이 당시가 바로 基督教이 한창 퍼져 나갈 때로서 基督教의 폐단보다 基督教의 장점, 이를테면 西歐의 文物이라든가 自由平等思想, 博愛 및 人類愛 등의 思想이 당시의 민중들에게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졌고, 또한 작가들도 基督教인이거나 基督教에 대해 우호적인 자들이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처럼 新小說에는 실제 작품 속에서 基督教思想 내지 基督教의 要素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新小說과 基督教은 서로 긴밀한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